전법 일기

5억 년 버튼

'유정이 엄마'라는 호칭이 입에 익어 '강미화 神位(신위)'라고 적힌 위패가 좀 낯설었다. 남편 거사님과 이제 겨우 고3인 유정이의 상심에 비할까마는 나 역시 15년 가까운 인연의 깊이에 차오르는 감정을 수습하는 것이 어려웠다. 빈소에 앉아 염불을 마치고 나서 문득 '5억 년 버튼'이 생각났다.

5억 년 버튼은 스가하라 소타의 단편 만화 '모두의 토니오쨩'의 에피소드인 '아르바이트(BUTTON)'에 등장하는 물건이다. 누르면 100만엔(한화 약 950만원)이 나오는 버튼이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누른 사람의 정신은 어딘가로 공간 이동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깨어 있을 뿐인 5억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끝나는 순간 정신뿐만 아니라 시간도 몸도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5억 년 버튼을 알게 된다. 옆에서 친구가 누르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주인공은 그 버튼을 누르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5억 년을 지내게 된다. 5억 년에 걸친 망상과 후회, 허무의 시간을 지나 깨달음과 우주와의 합일에 이른 주인공은, 5억 년이 지나고 마침내 본래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지워진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100만엔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다시 16번을 연속으로 누른다. 80억 년의 방황이 시작되고, 만화는 끝난다.

어쩌면 우리는 5억 년 버튼까지는 아니어도, 70년이나 80년 버튼 정도는 누르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육체는 지구밖 미지의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탄생한 이래 끝없이 순환하고 있는 물질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 원소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순환하는 물질의 조합에 따라 나는 어느 생에는 꽃이나 나무였으며, 어느 생은 바위나 강물이었고, 때로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이전 내 삶들이 전혀 기억에 없다. 마치 버튼을 누른 것 같이 말이다.

5억 년 버튼을 누를 것인가, 절대 누르지 않을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하는 핵심은 '버튼을 누르기 전의 나'와 '누르고 나서의 나'는 같은 존재인가, 별개의 타인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의 전생과 현생은 연속된 존재인가 별개의 존재인가 하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만화 속 5억 년 버튼은 5억 년의 시간을 홀로 보내게 하지만, 우리 삶은 결코 홀로 살다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다르다. 내가 죽고 나서 업과 인연에 따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세상에 날 때 이전 삶의 기억은 비록 없더라도, 내가 살면서 인연 맺은 사람들과 함께한 기억과 시간은 주변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정이 어머니 강미화 보살님은 내게 그런 분이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웃음으로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만남이 지구의 시간 동안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어느 생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당신이 남긴 미소에 나의 세상이 더 밝아졌으므로 추모의 글을 눈물 대신 웃음으로 맺으려 한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⑲ AI 시대 창의성 교육의 본질

AI도 못하는 '공감'이 창작의 뿌리

최근 나의 화두는 AI 시대에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다. 우연히 학교 연수에서 배운 동화책 만들기 수업을 듣고 더욱 그렇다. 네 살배기 아들을 위해 '뽀뽀 귀신'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어 주려 단 몇 줄의 프롬프트를 넣었을 뿐인데, 장대한 이야기가 단 몇 초 만에 뚝딱 생성되는 게 아닌가. 더구나 내가 머릿속에 그려 보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더욱 놀랐다. 거기서 생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걸 다시 PDF로 만들어 출판사에 보내면 내 이름이 저자로 붙은 정식 동화책이 완성되는 거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 권의 동화책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나의 의도가 반영된 아이디어이므로 창작이라고 우긴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마와 관자놀이의 경계처럼 과연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까지가 생성인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 수백 권의 별 의미도 없는 책을 너무나 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못내 찜찜할 뿐이다. 무의미한 정보의 무한 생식이 죽여도 죽여도 되살아나는 영혼 없는 좀비처럼 두렵기까지 하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AI는 과연 지능일까?"라고 물었다. 아이들 대부분이 멋진 영어 발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하며 "지능"이라고 답했다.

"그럼 과연 지능이 뭘까?"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경비행기 여행 중 밀림에 추락해 조난을 당했습니다. 밀림 생활이 처음이라 며칠을 굶다 주변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더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먹이를 구하는 능력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책 수십 권 쉽게 만드는 시대
무기가 지식이면 사용 능력은 지혜
지식 내 것 만들 때 창의성 피어나

우리는 몇 번만 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를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AI를 과연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뭐든지 척척 대답해 주는 이 AI는 참으로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럼 AI는 지혜 기계일까요, 지식 기계일까요?

밀림에서 조난 당한 사람이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껏 준비해 둔 창과 단도를, 멀리 있는 적은 단도로 대항하고 가까이 있는 적은 긴 창으로 대항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무기들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 없이는 절대로 지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런 지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저절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성취한 지식의 축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술 혁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AI가 아무리 음악과 소설과 영화를 잘 만들어도, AI는 그것을 감상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습니다. 눈물은 공감이며, 이 공감이야말로 마음을 일으키는 모든 창작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들 때, 분명 그 위로 황홀한 무지개처럼 창의성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공직자 종교편향, 방치 말아야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 공공시설인 기념관 내 공간을 교회 신도들에게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했으며, 김 관장은 부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일주일 뒤 서울 사직동 한 교회에도 기념관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 줬다. 이 과정에서 김 관장은 직원을 동원해 안내 등을 맡겼고, 일반인에게 거의 개방되지 않는 수장고까지 단체 관람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자, 특정 종교을 위한 직권 남용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직자들이 공공연히 자신의 종교색을 드러내고, 이를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김문수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올해 5월 교육 정책 협약식에서)는 "기독교 학교와 선교사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기독교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독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 냈다"며 성경을 펼쳐 들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령시가 무창포해수욕장에 모세상을 세우려 했던 것도 공적 자원을 특정 종교 홍보에 활용하려는 대표적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즉각적·상시 대응이 어려워 광범위한 종교 편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대로 공직자들의 종교중립 훼손과 종교편향을 방치한다면 종교 간 갈등은 깊어지고, 헌법 질서마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통한 처벌 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